

# 한국 내 조선족 여성의 분거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Korean-Chinese Women's Experiences about Family Separation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이 율 이\*\*

조 교 수 양 성 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Doctoral Student : Yi, Yu-le

Assistant Professor : Yang, Sung-eu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Korean-Chinese women's experiences of family separation. A qualitative approach was used to analyze the in-depth interviews with 14 Korean-Chinese women who lived away from their families in China. Korean-Chinese women showed the child-centered family values. The main reason of family separation was to provide children of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Korean-Chinese women, their husbands, and their extended family members worked as a team to support children. Their cohesive family relationships reflected the unique sociocultural context of Korean-Chinese society. Family separation seems to be normalized for the purpose of child education. The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how family values affect family life style.

---

▲주요어(Key Words) : 조선족 여성(Korean-Chinese women), 가족분거 (family separation)

###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다. 체류 외국인 1,168,477명중 취업, 유학, 사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은 377,560명(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체류자의 32.3%를 차지한다(법무부, 2010). 이 중 취업 자격 체류자는 306,334명으로 전체 조선족 중 81.1%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조선족의 한국행은 중국의 개방개혁이후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생기고, 자

본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김정란·김경신, 2009).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선족의 한국행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산가족의 친척방문을 계기로 활성화되었고, 이후로 장사, 노무수출, 사업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였다(김성걸, 2000).

원래 조선족은 19세기 중엽부터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으로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조선족은 한족중심의 중국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종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조선족 사회의 특수한 가치를 유지해 왔다(이현정, 2000). 이들은 민족적 가치와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혼인과 농촌중심의 폐쇄적인 가족구조로 그들만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초의수·최계숙, 2008). 또한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주 저 자 : 이율이 (E-mail : 200678@naver.com)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지하는 민족으로, 중국 소수민족들 가운데 민족적 정체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중국 사회에 공헌도 높은 민족으로 여겨져 왔다(권태환·박광성, 2004). 그러나 중국체제 변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였던 조선족 사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농촌체제개혁으로 인한 생산방식의 전환으로 노동생산율이 제고되고 잉여노동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잉여노동력이 비농업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박명희, 2008). 조선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농촌을 떠나 중소도시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연해지방으로 이동하였고, 한중수교 이후에는 한국으로 취업해 나갔다(전형권, 2006). 결국 조선족의 이러한 이동현상은 조선족 사회의 안정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조선족의 이동은 기혼 여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2001년 이후 조선족 기혼 여성의 이주노동은 급격히 증가하였다(이해웅, 2005). 이는 그동안 가족경제를 이끌어 가던 조선족 여성의 자립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속에서 조선족 남성보다 먼저, 다른 민족의 중국인보다도 먼저 시장경제체제에 뛰어들었다(오상순, 2000). 이들은 연변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개체호(개인사업)를 시작으로 요식업과 기타 서비스업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며 경제적 능력을 키워갔다(강순화, 2002). 조선족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함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가족부양자로 위치하게 되었다(이해웅, 2005). 또한 조선족 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생활비 부담을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며, 재산 소유도 부부 공동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조선족 여성의 가정 내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선미, 2004). 이와 같은 조선족 기혼 여성의 부양자 역할은 이주노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집단 거주를 하던 조선족 사회는 이주노동으로 인해 가족해체와 붕괴라는 문제가 나타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 온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이주민에 비해 기혼자가 많다는데서 예상할 수 있다(이해웅, 2005). 또한 아동교육적 입장에서는 기혼 조선족들의 한국취업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해체와 가족문제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윤갑정 외, 2008).

조선족 이주노동과 관련한 아동학과 교육학에서는 조선족 부모의 이주노동과 그에 따른 분거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연변 조선족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없는 별거가족은 52.9%에 이르며(채미화, 2004), 흑룡강성 조선족 중·고등학교의 경우 73.5%가 부모의 한국취업으로 인해 가족과 분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병삼, 2009).

라춘봉(2004)은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분거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인생관이 모호하며, 과소비와 낭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불건전한 도덕관념과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와 별거생활을 하는 아동은 장기간 동안 애정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결핍되어 신체발달 및 학업성적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았다(리철민·리홍길, 2004; 채영국 외, 2004). 그리고 별거가족 청소년들 또한 학습정서, 대인관계능력, 고독정서, 자책경향, 과민반응, 생리증상, 공포증상, 충동억제능력에 관한 문항검사에서 동거가족의 청소년보다 4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희·류혜순, 2004). 부모의 이주노동 후 중국에 남겨진 자녀들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연구(라춘봉, 2004; 리철민·리홍길, 2004; 박정희·류혜순, 2004; 안병삼, 2009; 채미화, 2004)에서 나타나듯이, 조선족 가족의 분거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조선족의 전통적 가치를 흔들고 가족생활 자체에도 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화, 2002). 이러한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분거생활로 인한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위험노출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부모와의 별거생활로 인한 자녀들의 생활환경과 적응에 관한 연구(윤갑정·정계숙, 2007b; 조복희·이주연, 2005; 조복희·이주연, 2006; 천영희 외, 2006)와 부모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들의 양육환경을 비교하여 부모 별거가족의 양육상황을 파악하는 연구(윤갑정·정계숙, 2007a)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조선족 별거가족 아동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조복희·이주연, 2005), 별거아동의 적응은 별거경험 자체보다 동거인 변인과 양육자와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복희·이주연, 2006; 천영희 외, 2006).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별거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발달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모든 별거가족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발달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보호요인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무리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조선족 이주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 부재를 부각하여 가족의 체제변화와 양육기능 약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해지는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인 증가하고, 이주노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가족생활과 분거생활에 대한 가족학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족상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분거가족 생활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선족 분거가족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연구에서 보였던 부모별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분거라는 차원에서 가족분거의 배경과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에 의한 가족의 분거가 가족문제와 위기의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생활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가족분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선입견 없이 이해하며,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협력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녀교육 및 부양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기능을 갖는 가족이 분거생활에 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분거생활자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기능이 분거가족생활에서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분거생활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에 온 조선족 여성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조선족 사회에서 가족부양 자로서의 역할을 오래 전부터 해왔으며, 중국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조선족으로서 현재의 분거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제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남아있는 조선족 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이 가족과 떨어져 이주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거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하는 30-40대 조선족 기혼 여성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중 길림성 연변자치주에서 많이 거주했으며, 현재 참여자 중 12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면접당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참여자가 11명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9명이며, 연구참여자 중 7명은 중국에서도 직업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음식업(식당에서의 주방 및 서빙)과 간병가사업(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육탕업(목욕관리)에 종사하며, 그 중 10명의 참여자가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입국 시기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로 체류기간은 연구참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8년 5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섭외는 연구참여자 준거에 의한 유목적표집(purposeful sample)으로 이루어졌다. 섭외된 조선족 여성 중 연구참여자 준거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른 연구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면접내용은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오게 된 배경과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들과의 생활에 대한 비구조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곳으로 하고,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한국어 면접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들의 발언내용에서 연구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과 단어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선족의 특성과 이들의 한국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접 외에도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집단 거주지를 살펴 보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노동과 분거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자료에 대한 줄 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각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해체하여 주요 의미단위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분석한 의미단위를 유사한 개념들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넷째, 범주들 간의 구조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료연구자의 조인(debriefing)을 경청하였다. 자료 분석의 각 단계마다 공동연구자간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초 결과를 동료연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III. 결 과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노동을 온 조선족 기혼 여성을 연

&lt;표 1&gt;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구분	연령		학력	남편 직업	혼인 상태	가족 거주지 (중국)	직업		최초 입국 년도	월수입 (만원)	송금액 (회/만원)	거주지 (한국)	자녀	양육 방법	연락 방법 (주)
	본인	남편					중국	한국							
1	49	50	고졸	사업	기혼	하북성	주부	간병 가사업	2004	130	100	인천시	여(26) 여(14)	기숙 학교	전화 (1회)
2	34	42	중졸	재활용 수거	기혼	길림성	주부	음식업	2007	150	30	서울시	여(12)	고모	전화/채팅 (1회)
3	45	46	중졸	농업	기혼	요녕성	상업	음식업	2000	150	100	서울시	여(24) 여(14)	기숙 학교	전화 (7회)
4	49	무응답	초졸	무응답	이혼	길림성	주부	음식업	1997	무응답	수입의 70%	서울시	남(26) 여(18)	기숙 학교	전화 (3회)
5	38	40	고졸	상업	별거	길림성	주부	음식업	2003	140	40	성남시	남(17)	시부모	전화 (월2-3회)
6	48	49	무응답	은행원	기혼	길림성	주부	음식업	2004	120	90	안산시	남(25) 남(19)	기숙 학교	전화 (2회)
7	36	37	고졸	수리공	기혼	길림성	주부	음식업	2008	120	150	청원군	여(11)	부	전화 (1-2회)
8	35	무응답	고졸	무응답	별거	길림성	숙박업	음식업	2001	150	200	인천시	남(13)	친정부	전화 (2-3회)
9	33	36	고졸	판매원	기혼	하북성	여행업	육탕업	2003	200	30	영암군	남(4)	기숙 유치원	전화 (3회)
10	36	40	전문대 졸	상업	기혼	길림성	상업	음식업	2000	180	30	수원시	여(8) 여(3)	친정모	전화/채팅 (7회)
11	48	53	무응답	무직	기혼	길림성	간호사	간병 가사업	2001	130	30-150	부천시	남(19)	부	전화 (3-4회)
12	45	47	고졸	공무원	기혼	길림성	상업	음식업	2007	130	무	안산시	남(15)	이모	전화 (3-4회)
13	39	41	고졸	농업	기혼	길림성	주부	제조업	2005	150	100	인천시	남(14)	부	전화 (2-3회)
14	35	39	고졸	회사원	기혼	흑룡강성	음식업	음식업	1999	140	70	부천시	남(8) 여(8)	친정모	전화/채팅 (7회)

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분거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조선족 사회의 자녀중심 가족가치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자녀성취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충실히 하고자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을 선택했다. 또한 중국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조기에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고자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취업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분거를 보편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기에 가졌던 자녀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적응해 갔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자녀관계를 중시하면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들은 자녀를 위한 가족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남편들과 협력하여 분거가족생활을 유지하며, 부부간의 신의를 강조하며, 의지하면서 분거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분거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대가

족이 있으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확대가족으로부터 분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조선족 분거가족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중심의 가족가치

연구참여자들은 “애가 해달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사례 5) 어머니들이었다. 이들은 자녀를 극진히 생각하면서 자녀를 가족생활의 중심에 두었다. 분거생활 이전부터 자녀의 요구에 맞춰 생활하고,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가족의 생활을 조정하며 지냈다. 또한 남편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중요시하면서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의 응집력을 키워왔다. 이러한 자녀중심의 가치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역할수행을 통해 존재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거기[중국 거주지]는 여름이면 밖에 야시장이 있어요. 그때는 애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 불고기 같은 것도 팔아요. 우리 애가 그걸 좋아하니까 가서 사먹고 그랬죠. 뭐... 낮에는 시장에 가서 애가 좋다는 걸로,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계절마다 사고 그러죠. 우리 남편 보다는 뭐... 애가 위죠. 애 데리고 다니면서 사달라는 거면 다 사주고 그랬죠. (웃음) (사례 7)

힘이 되는 건 애들이죠. 애들이 없으면 저 이렇게 힘들게 안 할 거 같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살죠. (사례 3)

이들의 분거생활에서도 자녀위주의 생활은 계속 이어졌다. “애 기죽을까, 그게 항상 걸리는”(사례 5) 어머니의 마음은 떨어져 지내는 분거생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고된 노동에 힘들어도 자녀에게 자주 전화하여 자녀의 생활을 돌보았다. 또한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은 것”(사례 13)을 사보내면서 멀리서도 자녀를 챙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들은 가족의 분거생활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모두 뒷받침해 주기위해 밤낮없이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

여기[한국] 옷이 예쁘잖아요. (웃음) 그래서 돈 나오면 [월급] 딸애 옷을 사서 보내요. 보내놓고서 전화하죠. “잘 맞냐, 맘에 드냐” 하고요. (사례 7)

애한테는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 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라고.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다하라고 해요. (사례 1)

조선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보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행복과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양육자와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부모로서 자녀의 생활에 물질적,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녀중심의 가치로,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다.

## 2. 자녀중심의 가족가치 실현을 위한 선택

### 1) 자녀의 성취에 대한 강조

가족생활의 중심을 자녀에게 둔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고자 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중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자녀의 성취를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녀성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집집마다 보면 애들이 잘 못하면 속 타잖아요. 와서 일한다고 해도, 돈은 번다고 하지만 애들이 잘못 들어서면 돈 벌어서 뭐하겠어요. 애들을 잘 건사해야 성공하는 거지. 비록 생활은 풍부하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 속으로 산 보람이 있는 것은 ‘자식농사 잘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례 1)

아들하고 딸이 제일 걱정이야. 잘 되어야 하는데... 인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사례 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학업적 성취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자녀가 중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필수라고 보고 자녀의 학업성취를 가족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녀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부모로서의 경제적 지원을 중요시했다. 이선미(2004) 연구에서 조선족 가구의 총 가계지출 중, 자녀 교육비의 비중이 3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가 36.4%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높은 교육열을 보였다.

일단 배운 게 있어야 하고, [배운 게] 있어야 발전하지요. 지식이 있어야 어디가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 배운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좋은 자리를 갈 수도 없지. (사례 4)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잖아요. 제가 키우지는 못해도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에도 대학을 안 나오면 직장도 없어요. (사례 14)

이들은 자녀성취를 학업성취와 연관 지어 자녀 양육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사례 12)에 가는 것에 큰 바람을 갖고 있었다. 취학 전 자녀를 기숙 유치원에 보내면서 좀 더 나은 교육으로 “똑똑하고, 공부 잘 하는 아이”(사례 9)로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학업적 성취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 자녀교육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 2) 자녀의 성취를 위한 선택적 분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중심의 가족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성취지향적인 자녀교육을 강조하였다. 그와 함께 자녀의 성취를 위한 부모로서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돈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사례 3) 현실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키우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한정되고 노동력에 대비해 임금이 낮아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에서의 수입한계로 인해 힘들지만 “별이가 좋은”(사례 13)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온 것이다.

돈 없으면 대학가기 어렵잖아요. 진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별이가 시원치 않으니 까요. 여기서[한국] 100만원 벌면 중국에서는 6개월은 생활하죠. (사례 8)

중국은 매일 일 안 해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적게 벌잖아요. 그러면 애들 못 가르쳐요. 애들 교육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요. (사례 6)

이렇듯, “애들 공부시키려고 [한국에] 온”(사례 11) 조선족 기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좀 더 젊고, 자녀가 어렸을 때 학비를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조기에 학비를 마련하여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녀와 함께 살고자 했다. 가족의 분거생활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이주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들은 자녀의 연령과 학업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의 기간을 정하고, 조기에 학비를 마련하고자 한국에서도 검소하게 지냈다.

고생되더라도 젊어서 벌어야 되죠. 나도 할 수 있을 때에 애들 뒷바라지를 해줘야죠. (사례 5)

아이가 그래도 어리니까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애가 학교 다닐 때에는 다 알 때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같이 있어야죠. (사례 9)

빨리 벌어서 나가려면[중국으로 가려면] 집값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지내는 게 편해요. (사례 13)

자녀중심의 가족가치를 지닌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취를 위해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다. 가족생활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면서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이들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사례 8) 한국에

서의 취업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위한 학비를 벌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어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자원획득에 몰입했다.

### 3) 선택적 분거의 일반화

연구참여자들이 가족과 떨어져 이주노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선족 사회의 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 이들은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취업은 보편적이며 그로 인한 가족의 분거도 대중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졌다. “애들 공부시키려면 돈이 필요한”(사례 1) 중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다 한국에 나오는”(사례 7) 실정에서 자신의 이주노동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해 조기에 학비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과 분거생활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가족분거가 대중화되면서 자녀양육을 대체해주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완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애들을 보면 학급단위가 서른 명인데 부모가 집에 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나왔어요. 서른 명에서 뭐... 대역섯도 안 되요. 애들도 부모가 다 한국에 나오니까 그 생활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사례 2)

한국에 와 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외국가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애들 맡겨 놓으면, 애들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사례 12)

이미 조선족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이 보편화되었다. 조선족 전체 가구의 50%가 한국취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주노동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조복희, 이주연, 200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연구참여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잘 사는 동포”(사례 6) 나라에 가서 일정기간 돈을 벌어 오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가족의 분거를 위기라고 여기기보다 가족생활주기에서 선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회가 될 때 빨리 하는 것이 더 나은”(사례 7)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분거생활에서의 자녀의 적응을 지켜보면서도 분거생활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다. 어머니와의 분거생활에 대해, 자녀들은 “어머니만 있으면 되니까, 뭐 사달란 말 안 하겠다”(사례 1)며 어머니를 붙잡기도 하고, “자기가 커서 돈 벌겠으니, 어머니 가지 말라”(사례 7)고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분거에 거부적인 모습을 보이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속되면서 또래문화 안에서

부모와의 분거를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녀들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애들이 자기랑 비슷한 애들끼리 놀잖아요. 뭐 이혼한 가정의 애들은 이혼한 가정의 애들끼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또 친해요. 그렇게 어울려 지내는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애가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사례 5)

내가 이렇게 옷도 보내고, 쓰라고 뭐 보내주면 그 애들[친구]하고 보나 봐요. “너는 뭐 받았니, 나는 뭐 보내왔다” 하면서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것들을 많이 받아 보니까 애들도 다 알죠. 뭐가 어떻다고 말도 하고. (사례 12)

### 3. 분거가족의 가족 관계

#### 1) 부모-자녀 관계

연구참여자들의 분거생활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더욱 중심이 되었다. 먼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를 걱정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확고히 해 나아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전화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자녀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거리감을 없애고자 했다. 또한 자녀들도 이주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고 “철이 빨리 들고”(사례 1), “학업에 충실한”(사례 12) 것으로 보답했다. 이렇듯, 연구참여자와 자녀들은 분거생활에서도 친밀감을 유지하며, 더욱 더 높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들이] 전화하면 항상 그래요, 건강하게 조심히 일하시라고. 내가 크면 별 테니까 힘들면 그냥 오라고. (사례 5)

[애들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그렇죠. (울음) 가게에 나오면 항상 전화부터 해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묻죠. (사례 6)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때는 내가 감기로 좀 아팠는데, 애가 알고서 약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 괜찮다고 했죠. (눈물) (사례 4)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관계에서는 부-자녀간의 관계도 가까워졌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노동으로 인해 부-자녀 관계는 현실적으로 긴밀해졌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아버

지의 양육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아지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자녀간의 친밀감이 높아졌다. 자녀가 기숙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주말마다 집에 오는 자녀를 맞이하고,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몫도 아버지였다. 이러한 부-자녀간의 관계가 돈독해 지면서 분거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지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남편이 이제 애를 챙기죠. 내가 있을 때에는 남편이 술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밤에 부르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애 혼자 있으니까 별로 안 다닌대요. 내가 없으니까 애도 아빠만 쫓아다닌대요. 할머니네 갈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갈 때도 그렇고. (웃음) 뭐 이젠 아빠가 다 해주죠. (사례 7)

이제 남편이 작은 애 오면 받아주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아빠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례 1)

#### 2) 부부 관계

자녀중심의 가족생활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직접적인 유대관계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관계에 만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성취라는 가족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편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자 했다. 자녀양육의 동반자로서 개인의 욕구충족보다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견뎌내자는 의지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부부간의 믿음을 중시하면서 자녀와 가족의 목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지금 이렇게 갈라서 따로 살면 외로워서 그런지 바람피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잘못되면 갈라서서 이혼하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저씨[남편]한테 그런 것 따라 배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 잘 살자고. 서로 보고 싶어도 나도 참고 아저씨도 참으라고. (웃음) 그렇게 믿어야죠. (사례 3)

남자도 여자도 떨어져 살면 정도 멀어지고, 감정상의 모습도 있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있고 가정이란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정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나는 [남편한테]그러죠. 가정을 중요시하고 싶다고. 서로 중요하게 보자고. (사례 10)

아저씨[남편]하고 전화할 때는 뭐... 애들 얘기죠. 애들 잘 있는가 하고요. (사례 7)

### 3) 확대가족과의 관계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유형은 핵가족 형태이지만, 분거이전부터 확대가족과 자주 왕래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확대가족들과 “명절과 가족의 생일을 서로 챙기며”(사례 6) 생활을 함께 하고, 가족의 일을 의논하고 가족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가겠다고 할 때에도 확대가족들은 “한국생활을 걱정하고”(사례 10), “돈 버느라 병 얻지 말고 건강들보며 지내라”(사례 13)고 조언해 주었고, 참여자들 역시 한국에 와서도 “시댁(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통화”(사례 9)하거나 한국에서 이주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중국에 있을 때에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어요. 저녁이면 우리 집에 모여 밥도 먹고, 형제들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았지요. (사례 13)

똑같이 애 때문에 고생하니까, 다 같은 부모 마음이고 그만큼 쌓은 정이 있잖아요.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무조건 전화 드리고 그렇죠. 평상시에는 자주 못 하니까 야간에 일하러 나올 때, 아프거나 힘들 때 생각나서 전화 드리고 그래요. (사례 5)

연구참여자들은 확대가족과의 높은 응집력 안에서 확대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확대가족의 도움으로 중국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이들의 확대가족들은 분거가족의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나 조카를 양육하며, 이들의 생활을 돕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별거생활을 하는 유아 및 아동을 조부모들이 양육하고 있는 조선족 분거가족에 대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부분이었다. 조선족의 확대가족 체계가 조선족 분거가족의 생활과 가족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선족 분거가족에게 확대가족은 사회적 지원체계였다.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와 양육의 주체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확대가족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해 주었다. 즉, 확대가족은 분거가족의 자녀 양육과 부양,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가족생활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단 고모하고 같이 있으니깐, 또 곁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으니깐, 애가 때 되어서는 필요한 건 뭐 다 되니까, 다른 걱정은 없어요. (중략)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고 해도 고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사례 2)

부모 도움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살림을 해주시죠. (중략) 동서도 한국에 나와서, 동서네 하고 우

리 집하고 살림을 하고 계시지요. (사례 6)

애가 지금은 집에서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녀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요. 시어머니가 힘들지요. 딸들 빨래하시라 밥해 먹이시라, 제가 나와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요. (사례 3)

한편, 확대가족의 지원은 한국 취업으로 이어졌다. 한국으로 시집 온 친척들이 “친척초청”으로 이들을 한국에 오게 하거나 먼저 한국에 나온 친척들이 이들의 이주생활을 돕고, 직장과 거주지를 찾아 주기도 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확대가족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주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친척 간의 높은 응집력은 서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다. 조선족의 확대가족 지원은 한국까지 이어져, 가족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시집은 사촌동생이 있는데, 우리 형편 얘기를 듣고 “언니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언니 한국에 올 수 있게 수속 받아줄게요.”라고 하는 거야. 정말 감동되죠. 그래서 오게 되어서 일도 하는 거예요. (사례 13)

처음에 우리 시누이가 먼저 왔어요. 저보다 앞서 왔거든요. (중략) 그래서 시누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직업소개소 찾아 가는 것도 알려줬어요. 서울 지리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 일하게 되었죠. (사례 11)

친척이 있다는 것이 첫째로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많이 의지하게 되요. 수속도 해주고 많이 도움주고, 전화도 많이 해주고, “불편하지 않은가”하고 많이 생각해 주니까요. (사례 1)

##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선족 기혼 여성의 분거가족관계와 분거생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분거생활은 자녀중심의 가족가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족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교육과 학업성취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자녀의 성취를 가족의 중대한 과업으로 여겼다. 가족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부모로서의 경제적 지원을 증가시키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거생활까지도 감수하였다. 이들은 자녀의 대학교육을 부모의 의



무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의 자원을 투입하고 활용하고자 했다. 자녀중심의 가치에서 자녀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 대학진학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부모는 현재의 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선택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부양 의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체제가 중국에서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임금 차가 6배 정도라고 밝힌 이진영·박우(2002)의 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중국과의 임금차이로 한국 취업을 선택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자녀학비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한국에 온 것이다. 이들은 “이제 중국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사례 3) 사회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가족가치와 부모로서의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분거생활을 결정한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분거생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자녀중심의 가족가치는 분거생활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먼저, 모-자녀관계는 분거이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와 함께 자녀의 성숙으로 자녀도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좀 더 정서적인 지원자로서 모-자녀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즉, 이들의 모-자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서적 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부-자녀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이주노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자녀간의 친밀감도 증가하였다. 분거 이후에 아버지의 역할이 좀 더 양육적으로 변화되면서 분거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듯, 조선족 기혼 여성이 경험하는 분거생활은 가족관계의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남편과 함께 자녀를 위한 분거임을 상기하면서 자녀양육과 교육,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분거가 가족의 위기를 만들어 내며, 부모와의 분거가 자녀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관점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가족의 가치실현을 위해 선택한 분거생활은 목적지향적인 생활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도 여러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부가 능동적으로 대체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족 간의 노력으로 분거생활로 인한 가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생활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갔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분거생활에서는 확대가족과의 강한

응집력이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집단촌 생활을 하던 조선족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선족들은 예전부터 근거리 지역에서 확대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지냈다.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특성은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확대가족과의 강한 유대는 연구참여자들의 분거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분거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Amold(199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자녀를 확대가족의 구성원에게 맡기며, 부모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활용하였다. 조선족 분거가족들은 확대가족과의 높은 응집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이주노동과 분거가족생활을 지속해 갔다. 이들의 확대가족 문화의 특수성은 중남미와 중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수민족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었다(Suzrez-Orozco 외, 2002). 연구참여자들의 확대가족은 선행연구(조복희·이주연, 2006; 천영희 외, 2006)의 결과에서처럼 부모의 부재를 보완하며, 자녀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왔다.

이러한 확대가족과의 응집력과 지원체제로 인해 조선족의 분거 생활 자체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확장된 가족 범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가족 기능이 확대가족들로 대체될 수 있으며, 가족생활의 변화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조선족 사회의 확대가족관계는 가족생활의 실제적인 동력이며, 가족가치를 실현하는 다세대 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선족 분거가족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조선족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자녀중심의 가족가치이다. 이들의 자녀중심 가족가치는 이주노동과 분거생활의 근원적 동기가 되었다. 또한 자녀중심의 가족가치는 이들의 분거생활 자체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가족자원 활용과 관련이 있다. 특히 자녀중심 가족가치는 자녀교육의 정도가 자녀의 미래를 특징짓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가족의 과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녀교육과 학업성취에 몰입된 가족가치는 조선족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족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교문화권의 가족주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는 가족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더 중요시한다(신수진, 1998). 가족은 인간화를 꿈꾸는 삶의 터전으로, 가족 안에서 자아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모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성취에서 부모로서의 성취감을 느끼며, 가족의 성공을 실현한다고 본다. 즉, 자녀의 성취

가 부모의 성취가 되고, 가족의 성공이 되므로 가족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는 가족주의가 우세하게 된다. 이러한 유교적 가족주의가 이어져 오면서, 조선족은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며, 자녀의 사회적 자립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이해웅, 2005).

또한 조선족의 자녀성취는 중국 사회에서 종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한족보다 나은 민족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이현정, 2000). 한족이 주류인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만의 종족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족가치를 이어받아 배움을 중요시하고, 예의 바르고 사리분별이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녀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이주노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족의 자녀교육은 중국 주류 사회로의 진입의지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진학을 통해 주류 사회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강조하였고 이주노동을 선택하며, 가족관계 변화와 확대가족의 지원을 통해 전략적인 가족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선족 분거가족은 중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자녀중심의 가족관에서 찾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가족전략을 갖고 있었다.

둘째, 조선족 분거가족생활의 유지과정에서 나타난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어, 확대가족이라는 조선족 사회의 특수한 관계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족 사회의 친족중심의 관계는 개별 가족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모의 부양의지를 위해, 확대가족들의 직접적인 지원은 조선족 기혼 여성들에게 중요한 지지대가 되었다.

이러한 확대가족과의 관계는 이주노동의 선택에서만만이 아니라 분거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한국에서의 취업생활과도 연결된다. 이들이 낮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직업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친족과의 관계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조선족의 확대가족 지원은 분거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며, 한국과 중국의 공간차원을 초월한 다세대간에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족 기혼 여성의 분거생활은 이주노동에 따른 생계형 분거가족이라고 단정되기보다는 조선족 사회의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회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시대성을 갖

고 있는 가족생활은 그 사회만의 고유한 가치들을 담아내게 되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조선족 사회의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온 조선족 기혼여성들의 분거생활은 조선족의 자녀교육관과 확대가족과의 관계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조선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들은 중국 사회의 소수민족으로서 제한된 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족가치 내에서 찾아 세대 간의 전략을 구성하는 현대적인 가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다.

이주 노동자인 조선족 기혼 여성의 경험을 근거로 조선족 분거가족의 생활과 가족 관계에 대해 알아본, 이 연구는 조선족 사회의 가족주의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간적인 공존만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외국인의 가족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다른 문화권의 가족생활과 가족 경험을 살펴보면서 각 문화권의 가족주의를 이해하며,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가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겠다.

조선족 분거가족에 대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참여자를 가족구성원 한 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족생활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구성원 각자가 바라보는 가족의 생활과 입장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개별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분거가족의 가족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분거가족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았지만, 분거 후 다시 재동거를 하는 가족생활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동거가족이 되면서 구성원들이 새롭게 재정립해가는 가족관계의 역동과 생활양식을 알아보는 연구도 가족관계와 생활에 적용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순화(2002). 중국 조선족 가족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 특강 자료.
- 권태환·박광성(2004). 중국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61-89.
- 김성걸(2000). 중국 조선족 현상태 분석 및 전망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 김정란·김경신(2009). 가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

- 회지, **13(4)**, 133-149.
- 라춘봉(2004).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의 문제 및 해결책-노무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조사와 사고-.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 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 (pp79-89). 한국교육개발원.
- 리철민·리홍길(2004). 단친무친학생 교육지남. 연변, 중국: 연변교육출판사.
- 박명희(2008). 경제체제개혁하의 중국조선족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新亞細亞**, **15(4)**, 40-63.
- 박정희·류혜순(2004). 연변 조선족 사회 결혼가정 현상과 자녀교육문제 연구.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 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pp72-78). 한국교육개발원.
-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9년 12월호.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09\\_12.jsp](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09_12.jsp).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근본사상과 정착과정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7-152.
- 안병삼(2009). 초국가적 이동현상에 따른 중국 조선족의 가족해체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2**, 153-176.
- 오상순(2000). 개혁개방과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의식변화, 민족과 문화, 9권, 81-117.
- 윤갑정·정계숙(2007a). 중국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양육환경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375-402.
- 윤갑정·정계숙(2007b). 중국 연변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 **아동학회지**, **28(4)**, 169-185.
- 윤갑정·고은경·정계숙(2008). 중국 연변 조선족 유아 양육 실제에 나타난 시대성과 민족성 이슈. **아동학회지**, **29(5)**, 31-50.
- 이선미(2004). 중국 조선족 여성의 가정복지 실태 조사. **한국동북아논총**, **30**, 103-126.
- 이진영·박우(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1**, 99-119.
- 이해웅(2005).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2)**, 107-143.
- 이현정(2000). 한국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형권(2006).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해석. **한국동북아논총** **38**, 135-158.
- 조복희·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조복희·이주연(2006).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7(4)**, 247-263.
- 채미화(2004). 연변 조선족 초중등학교 교육문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 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pp70-71). 한국교육개발원.
- 채영국·박민영·장석용·김태국·염인호·김춘선(2004). 연변 조선족의 과거와 현재(pp223-270).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 천영희·정계숙·옥경희·황혜정·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 **아동학회지**, **27(2)**, 101-126.
- 초의수·최계숙(2008). 연변 조선족의 가족주의와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29-50.
- Arnold, E.(1997). Issues of reunification of migrant West Indian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In J. L. Roopnarine & J. Brown(Eds.), *Caribbean families : Diversity among ethnic groups*(pp. 243-258). Greenwich, CT : Ablex.
- Gittins, D.(1995). 가족은 없다: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룡 외 옮김, 1997). 서울: 일신사.
- Suarez-Orozco, C., Todorova, I. L. G., & Louie, J.M.C. P.(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 625-643.

접수일 : 2010년 05월 14일

심사일 : 2010년 06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19일